



## ‘카드매출 빅데이터를 통해 본 서울소비경기지수’ 개요

### · 서울소비경기지수

시민생활에 밀접한 소매업, 숙박업, 음식점업 등 소비중심업종에 대하여 전체 또는 개별 생산활동의 종합적인 파악을 위하여 업종별 부가가치를 기준치로 적용한 지수

### · 데이터 : 신한카드 카드매출 빅데이터

### · 공간적 범위 : 서울 및 5대 권역

도심권	동남권	동북권	서남권	서북권
종로, 중구, 용산	서초, 강남, 송파, 강동	성동, 광진, 동대문, 종로, 성북, 강북, 도봉, 노원	양천, 강서, 구로, 금천, 영등포, 동작, 관악	은평, 서대문, 마포

### · 지수의 산식 : 라스피아레스(기준시점 고정 가중평균) 산식

· 서울 및 각 권역의 기준치 : 산업간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내며, 해당 지역 산업별 기초가격 부가가치 기준 기준치를 적용, 각 권역의 지수는 해당 지역의 산업 기준치 합이 1로 산정된 독립적인 지수로 각 권역 증감률의 합이 서울 전체의 증감률과 일치하지 않음

$\sum w_i = 1$ ,  $w_i$ 는 산업별 기준치를 의미 (기초가격 부가가치는 2015년 경제총조사 기준인 간비 + 영업이익 + 감가·대손상각비 + 세금과 공과금)

### · 지수 종류 : 경상지수 및 불변지수

- 경상지수 : 월별 매출액을 기준년도 매출액(2017년 평균)으로 나누어 작성한 지수

- 불변지수 : 경상지수  $\div$  디플레이터  $\times 100$  (디플레이터는 업종별 생산자물가 지수 활용)

### · 기여도 : 종합지수 증감률 = $\sum |기여도|$ , 기여도 = ( $\Delta$ 하위지수 / $\Delta$ 종합지수) $\times$ 종합지수 증감률, 는 각 산업을 의미

하위지수(산업 각 부문)가 종합지수의 증감률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보여줌

## 유의사항

- ‘카드매출 빅데이터를 통해 본 서울소비경기지수(이하 서울소비경기지수)’는 소매업 및 숙박·음식점업 등 시민생활에 밀접한 소비 중심 업종의 생산활동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월간 소비지수이다.
- 소매업 및 숙박·음식점업에 대한 소비는 서울의 민간 최종 소비지출의 약 30%로 소비 경기의 핵심 요소이다.
- 서울소비경기지수는 매월 1억 건의 신한카드 카드매출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서울 세부 지역의 소비 경기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.
- 서울소비경기지수는 통계청의 ‘서울 서비스업 생산지수’를 벤치마킹하여 생산 측면의 매출액을 중심으로 지수가 구성되었으나, 분석 대상인 소매업 및 숙박·음식점업이 소비 밀착업종임을 고려하여 지수의 명칭을 소비 경기지수로 명명한다.
- 서울소비경기지수는 서울연구원의 연구 자료로 국가 승인 통계가 아니며, 통계청의 ‘서울 서비스업 생산지수’와는 지수의 공간 및 시간적 범위와 데이터 출처에 따른 표본이 서로 달라 두 지수의 방향 또는 증감률이 상이할 수 있다.
- 신한카드 카드매출 빅데이터는 개인 및 법인이 이용한 신용·체크카드 소비를 서울 지역에 소재한 가맹점의 매출액으로 집계한 것으로, 서울 시민의 카드 소비뿐 아니라 서울 외 지역 국민들이 서울 지역 내에서 사용하는 카드 소비를 포함한다.
- 신한카드 카드매출 빅데이터는 서울 소매업 및 숙박·음식점업 전체 매출의 약 16%로 추정된다.
- 카드사 점유율 및 카드 사용 비율 변화에 따라 실제 매출액 대비 과소 또는 과대 추정될 소지가 있으며, 카드 가맹점의 업종 변화 및 생산자 물가 지수에 따라 경상 및 불변지수가 일부 조정될 수 있다.
- 서울소비경기지수는 물가 변동분을 제거한 불변지수의 전년동월비를 중심으로 작성 및 분석되며, 설·연휴 명절의 월간 이동과 영업 일수 변동, 그 외 불규칙 요인에 의한 효과가 분석 결과에 포함되므로 해석 및 이용에 유의해야 한다.
- 서울소비경기지수는 카드매출 빅데이터의 가공·조정·변환을 통해 산출된 지수로 신한카드 원본 데이터의 트렌드와는 차이가 있다.